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합니다.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가)

글을 내게 된 계기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가)은 최근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계기로 부모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폭력과 학대의 문제는 CCTV로만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24일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곧 시행될까라 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글의 연서명은 학부모 단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 전국 곳곳에 계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급하게 준비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아동인권과 안전한 보육현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길 바랍니다. 제발 CCTV 의무 설치에 우려를 표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른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1. 날마다 들려오는 어린이집 학대 소식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CCTV의 폭력 영상은 언론을 타고 아침, 점심, 저녁 뉴스 시간 내내 방송 되었습니다. 학대소식, 폭력 영상은 '과연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을까?'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만났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달라 보이고,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별일 없냐'며 의심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진 보육 공간. 사랑받고, 존중 받아야 할 존재인 아이들마저 믿고 맡길 수 없는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2. 어린이집 학대가 있을 때마다 여론은 들끓듯 CCTV 설치를 외쳐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언론에 CCTV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폭력교사 처벌과 CCTV 설치 확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도 어린이집 학대의 대안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여지 듯,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폭력과 학대가 근절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폭력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폭력을 근절하거나, 학대예방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학대의 대안은 아동/어린이의 권리 회복과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회복입니다. 기본적인 대안마련 없는 무조건적 CCTV설치는 유아/어린이/보육교사의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뿐입니다.
3.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교사, 특정 어린이집 문제가 아니라, 보육 현장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기에 특정 교사, 특정 어린이집을 감시한다고 해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사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 현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동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가 아동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으로 닫힌 어린이집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원장이 함께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대립하고,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처우, 부모가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운영은 아이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CCTV설치가 아니라, 보육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폭력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권리와 처우에 대해서 ‘최우선적’ 고려의 대상이었나 되돌아 봐야 합니다. 늘 사건이 터질 때만 틀어막기 식 정책만을 우선시 한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부추기는 보육 현장과 정책이진 않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보육현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학대문제 해결에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처벌’과 ‘감시’가 아니라 아동의 인권입니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안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인권 친화적 보육 현장으로의 변화와,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CTV로는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의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CCTV 의무설치는 아동학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일어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매일 만나는 선생님도 ‘혹시?’ 하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고 있었던 어린이집과 선생님을 의심하게 되고,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걱정스럽습니다. 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CCTV를 설치만을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력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CCTV의 사각지대에서도 학대는 가능합니다. CCTV는 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어린이집 학대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아이의 인권과 정서를 침해하는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CCTV가 비춰지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감시당하고, 관찰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자신의 생각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기다려줘야 할 때도 필요하고, 훈육을 해야 할 때도, 달래줘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여과 없이 보여 지는 것은 아이의 보육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아동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이 처리 되는 것 같아 학부모들은 화가 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안전한 보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로만 학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선생님과 신뢰를 쌓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학대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봄에 지치실 선생님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걸 깨달을 뻔 참 미안 합니다. 제대로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과 지내고, 날마다 늦게까지 일하고, 평가인증이 돌아오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어린이집 행사가 있을 때면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폭력사건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의 고마움보다는 내 아이의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낮은 월급으로 오랜 시간 일하고, 항상 감정을 자제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참으로 고된 노동입니다. 선생님들의 노동조건의 변화, 충분한 쉼이 없다면 아이들 역시도 제대로 보육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고통은 우리 아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은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 행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의 인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고려 없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CCTV의무설치는 영유아보호가 아니라 ‘영유아 인권침해’입니다. 좀 더 민주적 보육현장, 아이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합니다. CCTV 의무설치는 능사가 아닙니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교사간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CCTV로 그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CCTV 의무설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단체 :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가), 전국 보육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부모연대

개인 : 길은실, 김종훈, 김성연, 에버그린, 어린아이, 이현림, 이종희, 지희맘, 박수내, 안은정, 이상언, 주안맘, 한걸음, 김명선, 방하착, 추적자, 아샤, 샬롬, 은수기, 남주연, 박민호, 안길수, 이영주, 윤은상, 양운영, 고재영, 이세훈, 류동연, 박찬준, 김경남, 조장희, 김은천, 김일환, 김희영, 홍현우, 성희령, 이정수, 조영국, 박규경, 윤주영, 박지혜, 박은순, 박미애, 심지훈, 최우정, 문지윤, 이기원, 이승준, 이보람, 배은영, 황유정, 변재승, 조부영, 석병수, 윤상련, 이의용, 나미숙, 장옥진, 함수현, 안미경, 김갑수, 조명제, 김지애, 김미진, 김영란, 이태환, 김현주, 심정보, 박순자, 엄명환, 박순자, 한순희, 차수련, 박무열, 신창규, 안순옥, 박오숙, 이광훈, 이선희, 정봉희, 문경자, 난최구의 보육교사, 박효진, 서은실, 김종구, 이시형, 최나눔, 이동우, 이형섭, 정수영, 이슬비, 신지예, 김경희, 김은정, 이은미, 이미애, 라소피아, 윤현진, 황명익, 소용범, 박혜수, 김필곤, 신른제, 백복주, 권지영, 윤운재, 김혜진, 박희순, 신원희, 손종옥, 심미연, 이경원, 장혜연, 김정은, 박정일, 전미옥, 이혜경, 김창현, 이인숙, 강현이, 박희영, 정대규, 강민, 박지원, 장혜선, 정혜인, 이은정, 김지형, 라은정, 허건희, 문윤금, 박인산, 윤경숙, 김송아, 김정아, 이양수, 김현주, 송은주, 남영란, 김은화, 정주희, 장민사, 이세희, 김선옥, 박미경, 남정화, 황경희, 채영성, 김옥, 하계진, 김민정, 김동은, 김관식, 부민혁, 김유진, 김도숙, 양일동, 최은정, 최형국, 정명화, 신진, 서성협, 안성희, 김광돈, 김경희, 이현주, 오상환, 변재승, 유선경, 이연자, 설삼수, 왕윤정, 윤주영, 남수경, 박재현, 서연제